

# 家族스트레스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에 관한 研究 \*

## A Study on Family Stress and Socio-Psychological Family Resources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玉 先 花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Sun Wha Ok*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鄭 民 子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hun 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Min Ja Chung*

### 目 次

- |                    |               |
|--------------------|---------------|
| I. 研究의 目的          | IV. 研究方法 및 節次 |
| II. 理論的 背景         | V. 研究結果 分析    |
| III. 研究問題 및 變因의 定義 | VI. 結 論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mily stress and to specify family stress and socio-psychological resources which are associated variables.

For the evidence of this topic, research was conducted on 258 married persons dwelling in seoul.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Family Stressor Inventory referred by McCubbin's FILE(1981) and Sarason's LES(1979) and Socio-Psychological Family Resources Inventory referred by McCubbin's FIRM(1983).

This study offers to us that family income significantly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o-psychological family resources and family income is potential variable which intensifies family tension or burden.

This study touched only some variables, moreover, this is only a starting-point of family stress study in Korea.

So further studies would consider latent variables, process, limited situation, family interaction pattern, family orientation, etc., and subjective variables would be reflected.

\* 본 논문은 1984년 2월 서울대학교에 제출된 두번째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에 기초함.

## I. 研究의 目的

家族員은 生活하는 동안에 스트레스要因이라고 볼수 있는 生活事件變化를 경험한다. 그들이 生活事件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家族資源의 量을 넘어서管理되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은 危機를 맞고 불만스런 생활상태를 유지하거나, 家族解體現象이 있게 된다 (Hamilton, 1979). 즉 家族이 生活變動으로 인한 緊張이나 葛藤을 잘 管理하면 진보의 방향으로 나가지만 제대로 管理하지 못하면 家族이 危機에 직면하고 不適應하게 되면서, 問題家族이 되거나 불가피한 家族解體現象이 있어 家族員에게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社會問題發生源의 하나로서 家族스트레스가 존재한다. 가족스트레스연구는 社會問題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McCubbin, 1979) 社會問題와 家族問題解決을 위한 適應對策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家族은 여러 個人이 있음으로써 이들의 成長, 發達은 서로 영향을 주며 그 과정에서 外的, 內的으로 長期的이든 短期的이든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家族員들은 生活領域에 걸쳐 다른 경험을 함으로써 態度 및 關心, 價値, 感情變動이 다름 (Swenson, 1981) 을 고려할 때, 家族스트레스는 家族員에 따라, 家族狀況에 따라, 家族生活段階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家族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家族生活事件變化를 家族員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家族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管理나 適應은 個人的 次元과 더불어, 家族特性, 家族의 社會經濟的인 면, 커뮤니케이션, 健康狀態, 친적, 이웃,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는 支持등과 함께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家族스트레스에 관련된 여러 變因 및 變因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精神醫學研究에서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家族研究의 次元에서 家族의 特性이나 관련된 變因과 가족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家族스트레스를 드러내는 部分作業이며 이에 대한 概念定立을 目的의 하나로 두었다.

## II. 理論的 背景

### 1. 家族스트레스研究

家族스트레스研究는 기본적으로 어떤 家族이 어떤 狀況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떤 資源으로, 어떤 過程을 통하여, 어떤 對策, 行動을 할 것인가를 分析하고, 家族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한다 (McCubbin, 1979). 그런 스트레스연구는 社會問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分散的으로 접근되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준 生活事件變動과 家族病理와의 關係를 研究하면서 精神病理形態나 原因을 환자의 家族歷이나 家族構造의 特性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家族內的 스트레스를 보고 있다. 특히 家族相談, 家族治療者들은 문제를 일으킨 對象을 家族의 場에 놓고 가족이 받은 緊張이나 부담정도, 과정을 분석했다. 家族構造의 特性과 精神病理가 의미있게 특수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이병윤, 1983) 家族生活事件이 스트레스로 작용함으로써 家族의 緊張이 고조됨을 보여준다 (Sarason, 1979). 精神障礙나 問題對象의 誘發의 要素나 原因으로서, 家族·社會文化的 要因, 經濟的 要素, 結婚狀態는 家族을 중심으로 問題를 分析하는 과정 (이병윤, 1983)에서 家族스트레스의 한 면을 보게 했다. Croog는 가정생활속에서 家族相互間에 일어나는 心理的 葛藤, 가정생활의 파탄으로 오는 심리적 고통, 家族員사망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런데 家族問題를 구체적으로 접근한 Hill의 ABCX 모델의 家族危機概念은 가족스트레스理論形成에 기초가 되며, 그 후 Burr (1973), Hansen (1976), McCubbin (1979) 등이 경험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확장된 개념과 방법을 제시했다 (McCubbin, 1979). 아직까지 家族스트레스研究는 分散的으로 접근되고 있지만 家族의 緊張이나 危機화된 家族의 構造의 特性, 相互作用類型, 資源의 限界性, 家族員의 變動, 役割變動으로 오는 家族스트레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 (McCubbin, 1979).

#### (1) 家族스트레스 (family stressor) 의 개념

스트레스자체가 個人에게 어떤 反應이나 變化를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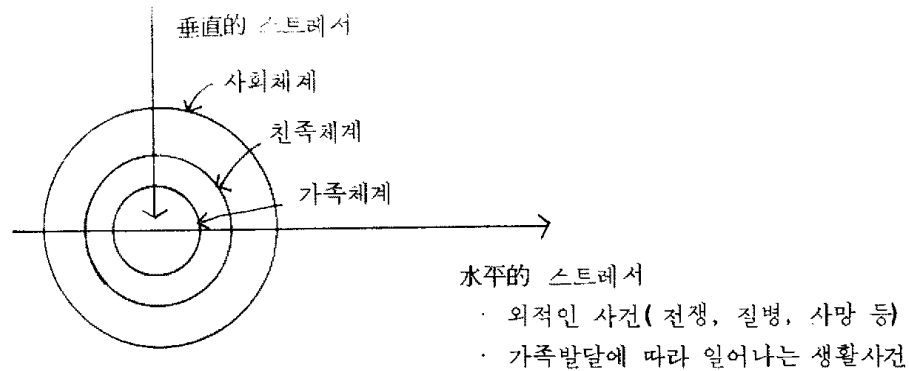


그림 1. 家族스트레스(Galvin 과 Brommel, 1982:201).

구하는 促進要因이 되기때문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서는 함께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스트레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를 분리해 보면, 스트레서는 개인이나 조직체에 解決을 요하는 어떤 문제이다(Howard & Scott, 1965). 根源에 따라 心理的, 生理的, 社會的 스트레스로 분류하기도 한다(Shelden, 1976). 그런데 家族體系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면 垂直的 스트레스와 水平的 스트레스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垂直的 스트레스는 가족의 慣習, 價値, 期待등을 포함하여 世代로 전수되는 기능 및 그에 관련된 類型이나 要因이다. 즉 家族의 相互作用類型으로서 이미 형성된 類型유지인지, 융통적 類型인지, 가족원간의 기대, 역할수행 등이 狀況과 관련되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Hansen & Johnson, 1979). 또한 水平的 스트레스는 家族生活段階를 통해 規範的(normative)으로 일어나는 問題와 예기치 않은 事件들로 구성된다(Galvin & Brommel, 1982). 그러므로 水平的 스트레스는 家族體系에 變動을 야기시키고 해결을 요구하는 生活事件이며, 家族員의 發達 및 生活에서 예견되거나 예견되지 않는 事件들로 구성된다.

家族스트레스는 Holmes & Rahe(1967), Dohrenwend(1978) 등의 개인적 생활변화목록을 참고로 하되 家族生活의 여러 段階에서 발생할 수 있는 發達論的, 狀況의 變動을 家族單位로 하여금 기록하게 함으로써 家族스트레스지표를 개발(McCubbin, 1981) 했다. 이것은 家族體系視點에서 한 家族員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느 정도 다른 家族員에게도 영향을 주리라고 가

정하고 있으며, 家族員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事件들로 진술된다. McCubbin의 생활사건 목록(FILE)<sup>1)</sup>은 지난 10년간 스트레스연구에서 스트레서라고 생각되는 것과 임상연구에서 연유된 내용을 포괄하여 7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FILE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 家族내의 緊張과 家族機能面에서 家族의 일치성과는  $r = -.41$ , 獨立性과는  $r = -.26$ , 葛藤과는  $r = -.42$ 의 관계를 보였고 全体 生活事件變化數와 家族機能과는  $r = -.24$ 의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아동의 건강지표와의 관계에서도 전체생활사건변동은  $r = -.26$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갈등이 높은 가족은 갈등성도가 낮은 가족보다 가족내 긴장과, 직업과 가족원의 전환에서 차이가 났고 전체생활사건도 차이가 있었다(McCubbin, 1981).

그러므로 적어도 家族生活事件變化는 家族스트레스로서 家族機能, 家族狀況, 家族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지표다. 그런데 본 연구는 家族生活事件變化를 家族스트레스로 봄으로써 주로 水平的 스트레스에 한정하고 있다.

## (2) 家族스트레스(family stress)의 개념

家族危機, 社會問題와 관련하여 家族스트레스理論이 형성되고 있는 관제상, 危機 및 스트레스概念을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신체의 화학적 구성요소의 독특한 변화로 인해 科學的으로 分析할 수 있고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은 1940년대 이후다. Selye는 스트레스는 신체가 낡고 낡은 등급 또는 기능이 손상되어 야기되는 일반적 變化로 주로 生理的 側面을論

註) FILE :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했다(배영숙, 1982; Times, 1983). Holmes & Rahe (1967)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日常生活의 適應에 필요한 時間과 勞力의 量으로 보고 Paykel(1971; 1972)은 생활사건에 의해 유발된 感情變化的 程度이거나 고통스런 程度(upsetting)로 정의했다. 그러나 단일기간에 단일 자극으로 보지 않고 역사와 미래를 가지고 변동하는 상태의 복잡성이 있으며 時間과 關係에 따른 能動的 過程을 포함하여 狀況內容과 限界를 갖고 相互作用하는 과정자체도 스트레스라고 보았다. 그러나 보통 스트레스는 변동시기에 광범위하게 항상 경험되는 것보다는 事件經驗에 있어 變化하는 客觀性과 함께 認知되는 비율이 결정적이다(Lauer & Lauer, 1976). 즉 사건변화 그것이 스트레스 決定要因이지만 이를 個人이 認識하는 程度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다를 것이다. 또한 狀況의 質도 중요하다. 限界的 狀況, 狀況의 모호성이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Elder, 1974). 그러므로 스트레스인 生活事件과 狀況에 따라 知覺하는 緊張, 困難程度로서 生理的, 情緒的, 行動的으로 나타나는 反應과 어떻게 자신이 認識하고 있는지에 따라 스트레스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危機의 概念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학문마다 사용하는 危機의 概念은 다양한 次元이 있고 사용범위가 넓다. 그 중 Lazarus & Baker (1956)가 주장했던 바를 따르면 스트레스는 인식된 총체인데 잠재적인 방해나 어떤 力動的인 방해상태라면 危機는 스트레스의 한 次元이다(세계사회과학백과사전, 1968). Hill에 의하면 危機는 기존패턴이 부적절하여 決定的 變化를 요구하는 상태이므로 조직이 해체되어야 하고 底力이 없어 붕괴되는 정도(Burr, 1973)라고 본다. 또한 중요생활 목표가 좌절되고 혼란에서 오는 과도한 緊張感이어서 평상시의 適應方法이나 생활양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할만큼 心理的 緊張을 느끼는 상태이다(이장호, 1982). 그러므로 危機는 스트레스의 연속변수를 다양한 스트레스 중의 한 特性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家族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인해 관리되지 않은 채로 남은 緊張이거나 위협(McCubbin, 1979)이며, 家族員이 認知하는 情緒狀態, 困難程度라면 家族危機는 가족이 어떤 스트레스에 부딪쳐 脆弱한 狀況이 되 資源이 부적절하고 能力이 없어진 狀態이거나 조직이 해체되어야 할 상황이다. 어떤 경우에는 家族危機狀態가

崩壞水準에 이르러 家族關係를 부당한 가운데 유지시키기도하고 어느정도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잠재력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결정적 전환의 모든면을 危機라고 해야 할지는 의문이다(McCubbin, 1979). 그러나 家族危機는 가족스트레스 연속선상에서 보되 家族資源이 이미 그 狀況을 管理하지 못할 정도로 崩壞되어졌거나 崩壞되어야 할 수준임을 시사할 수 있다.

## 2. 家族生活段階와 家族스트레스

같은 시기의 사람은 유사한 발달특성을 갖고 社會的으로 부가되는 役割에 의해 決定的 役割轉換을 이루며 유사한 경험을 하듯, 같은 段階에 있는 家族은 유사한 問題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時間經過에 따라 家族은 子女出產, 子女養育, 子女의 出家, 父母時期로부터 은퇴 배우자사망 등의 예정적 생활사건이 일어난다. 이는 家族員의 변화, 수입지출패턴이 바뀌고 個人의 性格特性, 社會的 役割이 변하면서 家族狀況이나 資源도 변함을 의미한다.

新婚期 家族은 서로에 대한 適應, 집마련, 친척과의 교류, 직업과의 조화 등으로 緊張이 수반되고 子女養育期는 子女教育, 成長과 관련된 父母役割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中年期家族은 자녀가 여러 이유로 집을 떠나고 資源不足이 따르면서 스트레스가 있다. 父母後時期는 자녀의 떠남으로 긴장이 감소되고 祖父母가 됨으로써 보상과 만족스런 關係를 유지하기도 한다(Medling & McCarrey 1981). 그러나 老年期가 되면 습관적 행위가 무너지고 父母로서 가졌던 정서유대 및 自我感의 喪失이 스트레스로 나타난다. 특히 배우자사망, 역할상실로 疎外感이 증대되고 신체적 정신적 쇠퇴까지 증대되면 노년기가족의 특유의 스트레스를 갖기도 한다(Kimmel, 1980; McCubbin, 1979).

發達論的 變化나 事件이 중첩되어, 예기치 않은 전쟁이나 社會變動, 경제사정 악화, 갑작스런 질병, 임신, 사망 등이 일어나 家族내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Galvin & Brommel, 1982). Holmes & Rahe (1967) 研究에서 보면 스트레스강도가 가장 높은 순위는 배우자 사망, 자녀사망, 불치병진단, 이혼 등의 10위까지 예견치 못한 사건이고 Paykel(1971; 1972)의 연구도 자녀, 배우자사망, 배우자의 外道, 사업실패, 이혼 등이 있고 최태진(1981) 연구에서도 배우자, 자녀의 사망, 치명적 질병, 이혼, 불구자가 됨, 배우자의 外道, 性的 不和 등에서 적응량이 높게 필요

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평가하되 가중치를 주게 하였는데, 실제로, 현재 자신이 직접 받고있는 스트레스인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어느정도 생활하는 동안 예견되는 사건일지라도 기대치 않고 맞부딪칠 때가 있다. 예를들어 임신이나 자녀를 갖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불구자녀가 탄생했거나 원치않은 임신이면 스트레스로 강하게 작용한다(Galvin & Brommel, 1982). 그러므로 家族스트레스는 家族發達을 거치면서 規範的, 非規範的 生活事件이 일어남으로써 상황에 대한 모호성이 가중된 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Hansen, 1979; McCubbin, 1979).

家族生活段階를 적용한 結婚滿足, 結婚適應에 대한 결과에서 논란을 이루듯(김혜선, 1982; Rice, 1979) 유용성여부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Swenson(1981) 연구에서 보면 結婚生活問題로 子女養育, 家事勞動, 經濟的 問題, 의사결정, 친척관계, 애정표현, 가족보호 등은 全段階를 통하여 곡선관계를 보였다. 즉 新婚期때에는 적었던 문제가 幼兒期, 學童期에 가장 높아지고 中年期를 거쳐 老年期로 가면서 감소된다. 그러므로 家族스트레스測定을 통하여 家族의 各段階에 따라 家族內의 문제들이 어느정도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

### 3. 家族스트레스에 대한 性別, 社會階層變因

Paykel(1971)이 生活事件尺度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性別에 따라 모든 事件의 平均點數는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태진(1982)의 연구 결과는 性別에 따라 社會적응량에서 차이가 났다. 이는 女子集團이 男子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고, 특히 배우자, 家族내문제는 남자보다 더 높은 社會適應量을 나타냈다. 또한 性別에 따라 스트레스영역 및 심각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에게는 직장조건변화, 법적인 문제, 친구의 죽음에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家族건강상의 변화, 식습관변화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여자가 더 높았다(배영숙, 1982). 그러나 앞의 결과는 유의도 검증이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스트레스가 性別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없게도 나타남으로써, 認知를 통한 스트레스가 性別에 따라 어떠한가는 相反된 結果로 남아 있다. 또한 家族員은 생활하는 場이 서로 달라서 生活經驗이 다르며 態度, 感情, 價値도 다를 수 있음(Sw-

enson, 1981)을 감안할 때 남편, 부인이 느끼는 家族스트레스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社會階層이 낮은 집단은 그들 생활이 不安定한 要素를 많이 갖고있다. 職業의 不安定, 收入의 불확실, 육체적으로 항상 피곤해 있고, 老後에는 강요된 은퇴, 永久失業者가 되기 쉽다. 특히 經濟的 貧困은 結婚生活의 不滿을 표시한 부인들의 가장 큰 이유다. 그러므로 영세층일수록 生活事件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항존함으로써 건강상태악화, 질병과 함께 긴장과 갈등이 가족내에 깔려 있다(Hamilton, 1979; 이효재, 1972). 그러므로 家族의 社會經濟的 變因은 家族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받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性別 및 社會계층지표의 構成要因인 家族收入과 教育程度를 보기로 한다.

### 4. 家族스트레스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家族이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家族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적어도 家族資源의 레퍼터리가 다양하고,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家族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상황에 잘 적응할 것임을 假定할 수 있다. McCubbin(1983)은 “자신의 家族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를 판단하여 0~3점으로 評價하게 하여 家族資源量을 결정하고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의 下位次元을 要因分析을 통해 家族부심과 커뮤니케이션, 家族건강과 성취감, 친척과의 교류, 경제적 풍요의 4 차원으로 레퍼터리를 구성했다.

이를 적용한 결과 家族葛藤과는 不定的 關係를 보였고, 家族의 一致性, 表現, 統合과는 正的, 相關을 보였다. 또한 갈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家族資源이 적었다. 그러므로 家族스트레스가 家族體系內에 관리되지 않은 채로 남은 긴장이나 위협이고 家族이 認知하는 困難程度라면 社會心理的 家族資源과는 否定的 關係를 이룰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에 영향을 주는 社會人口學的 變因을 고려해야 되는데(McCubbin, 1983) 현재까지는 研究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社會人口學的 變因의 일부인 性別, 教育程度, 家族收入을 分析하고 아울러 家族生活段階를 고려하여 봄으로써 구체적으로 社會心理的 家族資源과 家族스트레스와의 關係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理論과 實證的 研究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인의 명료화와 이론의 진보를 위해 家族스트레스의 概念熟考, 方法論的 問題, 그 현상들에 대한 자료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家族스트레스에서 기본적으로 밝혀져야 할 스트레스, 그로인한 家族스트레스, 이에 대응하고 적응시키는 要因으로서 家族資源, 부수되는 관련요인을 정의, 측정하고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 III. 研究問題 및 變因의 定義

#### 1. 研究問題

이와 같은 理論的 考察에서 본 연구는 家族스트레스가 家族生活段階, 性別, 家族收入, 教育程度, 社會心理的 家族資源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研究問題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I>

· 家族生活事件變化로 인한 家族스트레스는 家族生活段階에 따라 어떠한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은 家族生活段階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II>

· 性別, 教育程度, 家族收入은 家族스트레스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 性別, 教育程度, 家族收入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III>

· 家族스트레스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위의 내용을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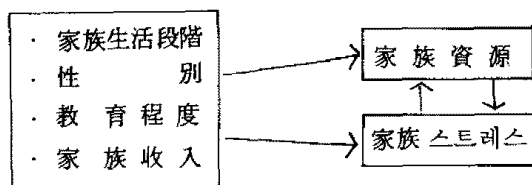


그림 2. 研究模型.

#### 2. 變因의 定義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家族스트레스, 家族스트레스, 家族生活段階,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家族스트레스는 家族生活을 통하여 規範的으로

일어나는 일과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事件이다. 즉 家族에 變動을 야기시키고 解決을 요구하는 生活事件이 되 주로 1 년동안에 경험한 事件이다. 이는 한 家族員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家族員에게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가정하고 있다.

(2) 家族스트레스는 家族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된 緊張이 관리되지 않은 채로 남은 상태이며 家族員이 認知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을 말한다. 家族스트레스가 갈더라도 응답자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차원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함으로써 否定的 家族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스트레스 영향을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3) 家族生活段階는 Duvall (1977)의 단계분류를 기초로 하되 韓國의 경우는 子女의 婚姻에까지도 부모 자녀가 강하게 상호관계를 가지므로 자녀의 進水(launching home) 보다는 자녀의 婚姻이 더 타당성을 갖는것(강희경; 1981)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단계를 나누었다. 즉 I 단계: 新婚期 家族(자녀출산이전家族), II 단계: 乳幼兒期家族(만이가 6 세전인 家族), III 단계: 學童期家族(만이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家族), IV 단계: 10代家族(만이가 고등학생인 家族), V 단계: 青年期 家族(만이가 大學生이거나 就業中이되 結婚前인 家族), VI 단계: 成人子女家族(만아이를 결혼시킨 家族)

(4) 社會心理的 家族資源: 社會心理的 家族員으로서 個人, 集團으로서 家族特性, 社會心理的 交流를 통하여 形成되는 認知的 次元의 家族資源이다. 그러므로 이 資源은 客觀的으로 資源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원의 內的 動機, 情緒狀態 등의 主觀的 知覺을 근본으로 하여 認識하는 資源이다.

### IV. 研究方法 및 節次

#### 1. 대 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주택지구에서 거주하는 夫婦家族이되 外形的으로 파괴되지 않은 가족의 남편 또는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의 기재는 自己報告式으로 부인이나 남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질문내용이 길고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야 하므로 응답하지 못한 것과 거절한 가정이 많아 500부 배포중 258 부만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었다.

2. 測定道具

(1) 家族스트레스목록표

家族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스트레스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McCubbin의 LES(1978)<sup>2)</sup>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71문항을 통하여 전반적인 家族스트레스가 제시되고 이외에 다른 사건이 있으면 기록하게끔 여백을 주었다. 1년동안 경험한 사건이면 표시를 하고 그로 인한 긴장이나 부담이 아직도 남아있되, 부정적인면으로 보면 ⊖칸에, 기쁘고 좋게 느끼고 있으면 ⊕칸에 나타내게 했다. 그에 대한 영향은 0~5 점으로서 영향없으면 0, 약간이면 1, 어느정도이면 2, 보통 정도이면 3, 훨씬이면 4, 대단히이면 5에 표시하며 家族스트레스심각도는 양분하여 따로 합산했다.

그런데 본 연구의 家族스트레스의 定義에 따라 ⊕의 내용을 취했다.

(2) 家族資源尺度

McCubbin(1983)의 FIRM<sup>3)</sup>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되 資料分析시에는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을 나타내는 문항만을 선택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家族狀況을 정확히 설명하면 3 점, 보통이면 2 점, 약간이면 1, 전혀그렇지 않으면 0 을 주게 하였는데 내용에 따라 逆으로 계산되기도 한다. 그에 대한 합산으로 社會心

理的 家族資源量이 측정되었다.

(3) 資料蒐集 및 統計處理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84년 10월 3일~15일 까지 수집되었다. 질문지가 自己報告式이고 회고과정 및 현재상태를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이틀 후에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統計處理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測定道具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모델(그결과 家族스트레스 목록표의 신뢰도는  $\alpha = .77$ , 家族資源尺度의 신뢰도는  $\alpha = .83$ )을 사용했고, 각 주요변인의 특성은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을 사용했다. 각 變因에 따라 一元變考量分析(ANOVA), 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Pearson의 상관계수를 함께 적용하였다.

V. 研究結果 分析

1. 연구문제 I의 분석

家族生活段階에 따라 家族스트레스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의 차이를 F-검증을 통하여 검증해 본 결과는 표 1, 2와 같다.

본 分析에서 新婚期家族과 成人子女家族段階를 제외했는데, 이유는 F검증을 할 때 정상분포를 가정하려면 사례가 적어도 20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차배근,

표 1. 家族生活段階에 따른 家族스트레스 정도

가족생활단계 스트레스영역	II (29)	III (50)	IV (102)	V (54)	F 값
가족내 긴장사건	11.62	10.18	10.55	10.91	0.16
부부생활	1.72	1.00	1.12	0.57	1.44
임신과 자녀출산	1.10	0.56	0.37	0.41	1.42
가정경제문제	5.97	0.64	6.76	5.85	1.66
가족원이동·직업변화	2.24	2.52	1.37	1.20	2.09
질 병	3.83	2.62	3.27	2.80	0.44
상 실	0.38	1.64	0.84	0.67	1.42
가족의 전환	0.69	0.94	0.45	0.74	0.46
규칙위반	0.00	0.90	0.17	0.52	1.28
전체스트레스	27.55	25.00	24.89	23.67	0.21

註 2) LES ; The Life Expenence Survey.

3) FIRM ;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1980)이다. 이로써 家族生活段階를 적용했으나 전반적 경향을 알수 없는 한계성을 갖는다.

표 1에서 보듯이 II 단계에서 V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內在하고 있다.

Medling & McCarrey(1981)에 의하면 新婚期家族, 父母役割時期인 子女養育家族, 進水期家族, 老年期家族은 質적으로 다른 스트레스를 받으며, Swenson(1981)에 의하면 結婚生活問題는 幼兒期, 學童期에 가장 많고 新婚期, 進水期, 老年期家族順으로 문제가 감소하는 곡선적 관계를 이룬다고 했다. 그런데 본 연구의 II - V 단계는 Medling & McCarrey(1981)나 Swenson(1981) 분류에서 보듯이 모두 父母役割時期에 해당하고 있어서 家族스트레스現象을 家族生活週期段階別로 파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父母役割時期인 II - V 단계간에서는 스트레스는 별로 차이가 없다.

표 2에서는, II - V 단계사이에 全体家族資源量은 차이가 없어도 下位要因인 친척과의 교류를 통해서 갖는 資源과 경제적 풍요로움은 II 단계에서 V 단계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家族의 건강과 성취성에 따른 家族資源量은 段階에 따라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2. 연구문제 II의 분석

性別, 教育程度, 家族收入에 따라 家族스트레스 및 家族資源을 살펴본 결과는 표 3, 4 와 같다.

性別·教育程度, 家族收入에 따라서 家族스트레스는 차이가 없게 보인다. 家族員이 생활하는 場이 다를지라도(Swenson 1981), 남편이나 부인은 家族스트레스나 家族資源의 認知에 차이가 없다. 즉 그들은 비슷한 정도의 긴장이나 부담을 느낀다. 家族원들간에 인지하는 스트레스영역이나 程度를 알려면 matched couple

표 2 . 家族生活段階에 따른 家族資源量

가족생활단계 가족자원	II(29)	III(50)	IV(102)	V(54)	F 값
가족의 자부심과 의사소통(R 1)	24.17	25.67	24.56	26.39	0.82
가족의 건강과 성취감(R 2)	36.69	38.81	38.41	39.29	0.43
친척과의 지지(R 3)	6.24	6.88	6.40	7.50	3.55*
·경제적 풍요로움(R 4)	23.24	23.33	21.46	26.25	3.60*
가족자원총량(R)	90.35	94.50	90.65	99.42	2.06

\* P < .05

표 3 . 性別·教育·家族收入에 따른 家族스트레스정도

성별 교육정도 가족수입 가족스트레스	여 (137)	남 (120)	F 값 (257)	국졸 이하 (29)	중졸 (49)	고졸 (116)	대졸 (63)	F 값 (257)	下(50)	中(149)	上(51)	(250) F 값
									30만원 미만	30~79 만원	80만원 이상	
가족내 긴장사건	11.43	10.15	1.19	9.45	12.00	10.64	10.9	0.47	11.64	10.61	11.61	0.34
부부생활	1.05	0.92	0.22	0.97	1.20	0.91	1.00	0.17	1.28	0.87	1.07	0.51
임신 및 자녀출산	0.75	0.59	0.30	0.45	0.86	0.77	0.46	0.46	0.66	0.61	0.94	0.40
가정경제면	5.27	6.16	0.03	5.21	6.27	6.21	5.65	0.35	6.86	6.00	5.63	0.65
직업변화	1.71	1.73	0.01	0.76	1.86	1.60	2.29	1.60	1.94	1.83	1.41	0.40
질병	3.00	3.03	0.02	2.48	3.00	3.70	2.05	1.61	3.28	3.24	2.05	1.15
상실	1.04	0.83	0.33	0.48	1.37	1.73	1.19	0.93	1.04	0.78	1.43	0.94
가족원의 전환	0.91	0.37	2.96	0.66	0.67	0.53	0.87	0.26	0.56	0.44	1.45	3.09
규칙위반	0.49	0.20	0.96	0.21	0.20	0.33	0.59	0.31	0.84	0.28	0.71	0.70
전체스트레스(N)	26.28	23.88	0.811	20.66	27.43	25.40	25.03	0.62	28.10	24.68	26.31	0.50



표 4. 性別·教育·家族收入에 따른 社會心理的 家族資源量

성별 교육 정도 가족 수입 가족 자원량	여 (136)	남 (115)	F 값 (257)	국 졸 이 하 (29)	중 졸 (48)	고 졸 (113)	대 졸 (62)	F 값 (252)	下(48) 30만원 미만	中(147) 30~79 만원	上(50) 80만원 이상	(245) F 값
가족자부심과 커뮤니 케이션(R 1)	25.65	25.27	0.14	21.79	24.50	25.37	28.16	4.87**	20.35	25.69	29.54	19.05***
가족건강 성취감(R 2)	38.36	37.72	0.25	38.83	35.33	38.86	38.38	1.42	37.14	38.14	38.88	0.38
친척지지(R 3)	6.69	6.84	0.26	6.72	6.67	6.62	7.10	0.65	6.19	6.91	6.82	1.91
경제적 풍요로움(R 4)	23.74	23.10	0.34	19.62	21.46	23.35	26.94	0.65***	16.44	22.98	30.64	44.50***
가족자원총량(R)	94.46	92.69	0.41	86.97	87.96	94.06	100.53	4.19**	50.06	93.56	105.43	20.83***

\*\* P < .01      \*\*\* P < .001

이나 부모-자녀들을 동시에 표본대상으로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社會階層指標이기도 한 家族收入과 教育程度를 고려했을 때 家族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지만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은 차이가 있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家族의 자부심과 커뮤니케이션, 경제적 풍요로움의 家族資源은 많아지고 전반적인 家族資源量이 많아진다. 이에 家族收入을 고려했을 때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家族收入과 教育程度는 社會心理的 家族資源量을 결정하는 要因임을 알 수 있다.

3. 연구문제 III의 분석

표 5에서 보듯이 家族스트레스와 家族資源은  $r = -.31$ 로 유의하게 상관이 있다. 특히 家族스트레스는 家族의 건강과 성취감과 관련된다. 즉 家族건강 및 성취감이 낮으면 家族스트레스는 높게 내재할 것임( $r = -.36$ \*\*\*)을 나타내고 있다. 좀더 세분하여 家族資源量에 따라 家族스트레스를 보면 표 6과 같다. 家族資源量이 상대적으로 결핍된 家族은 스트레스가 35.57, 보통수준인 家族은 24.43,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家族은 12.50정도를 내재하고 있다. 이를 下位次元別로 보면 R1의 家族資源이 보통인 家族내에는 스트레스가 26.38, 결핍상태인 家族은 24.97, 풍부한 家族은 16.47 정도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R2의 家族資源量에 따라 결핍상태 家族은 스트레스가 39.88, 보통정

표 5. 家族資源과 家族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R 1	R 2	R 3	R 4	R	Stress N
R 1	1	.24***	.49***	.68***	.80***	.15***
R 2		1	.20***	.29***	.70***	.36***
R 3			1	.40***	.53***	.11***
R 4				1	.82***	.21***
R					1	.31***
Stress N						

\*\*\* P < .001

도인 家族은 23.72, 풍부한 家族은 13.44 정도의 건강이나 부담감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이 높은 家族은 보통인 家族보다, 보통인 家族은 결핍된 家族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4. 家族스트레스에 미치는 諸變因의 獨立的인 影響

지금까지 <연구문제 I, II, III>을 통하여 家族스트레스와 家族資源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들간의 獨立的인 影響力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원점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多變因回歸모델을 설정했다.

표 6. 家族資源量(上, 中, 下)<sup>a</sup>에 따른 家族스트레스 정도

가족 자원 가족스트레스정도	자원결핍가족	자원보통가족	자원풍부가족	F 값
가족의 자부심과 커뮤니케이션(R 1)	24.97 (39)	26.38 (178)	16.47 (34)	5.32 ***
가족의 건강과 성취성(R 2)	39.88 (33)	23.72 (193)	13.44 (25)	12.36 ***
친척과의 교류(R 3)	25.17 (40)	25.63 (186)	18.20 (25)	1.20
경제적 풍요로움(R 4)	31.05 (38)	25.38 (183)	13.40 (30)	2.14
가족자원총량(R)	37.57 (N = 40)	24.43 (N = 175)	12.50 (N = 36)	15.70 ***

\*\*\* P < .001

a. 집단분류는 M ± 1 SD (M 은 평균, SD는 표준편차) 또는 68% 내에 있는 가족자원은 보통, 그 이하이면 상대적으로 자원결핍, 68% 이상범위에 있으면 자원을 풍부하게 봐서 下, 中, 上으로 나누었다.

回歸모델 :  $Y_1 = b_0 + b_1 X_1 + b_2 X_2 + b_4 X_4 + b_5 Y_2 + e$

$Y_2 = b'_0 + b'_1 X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Y_1 + e'$

X<sub>1</sub>: 性別, X<sub>2</sub>: 教育程度, X<sub>3</sub>: 家族收入,

X<sub>4</sub>: 家族生活段階

Y<sub>1</sub>: 社會心理的 家族資源, Y<sub>2</sub>: 家族스트레스

b<sub>0</sub>, b'<sub>0</sub>: 常數

b<sub>1</sub>...b<sub>4</sub>, b<sub>5</sub>; b'<sub>1</sub>...b'<sub>4</sub>, b'<sub>5</sub>; 非標準化된 部分 回歸係數

e, e' : 오차

본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각變因들간의 相關關係는 표 7-1 과 같고 主要獨立變因

표 7-1. 家族스트레스에 관련되는 相關關係

(N = 243)

	성	별	교	육	가족수입	가족생활단계	사회심리적 가족자원	가족스트레스
성 별	1.00							
교 육	0.20 **	1.00						
가족수입	0.00	0.45 ***	1.00					
가족생활단계	-0.04	-0.27 ***	0.12 ***	1.00				
사회심리적 가족자원	-0.06	0.22 ***	0.41 ***	0.07	1.00			
가족스트레스	-0.09	0.02	-0.05	-0.01	-0.31 ***	1.00		
Mean	0.47	4.07	5.35	3.78	93.48	25.12		
SD	0.05	1.35	2.12	1.16	21.38	20.57		

\*\* P < .01 \*\*\* P < .001 성별은 Dummy variables 로 전환(여 - 0, 남 - 1)

표 7-2. 家族스트레스에 미치는 諸變因의 回歸係數

從屬變因 (dependent Variables)	獨立變因(independent Variables)						R <sup>2</sup>
	성	별	교	육	수	입	
사회심리적가족자원	- 4.49 <sup>a</sup>	1.75	3.45	.88	.31		.26
	- .11 <sup>b</sup>	0.11	.34 <sup>*</sup>	.05	-.30 <sup>**</sup>		
家族스트레스 (N)	- 5.49	1.80	.42	.58	-.35		.12
	- .13 <sup>b</sup>	0.12	.04	.03	-.36 <sup>**</sup>		

a :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 Standardized Coefficient

\* P < .05 \*\* P < .01

의 獨立的 影響力을 보면 표 7-2와 같다.

표 7-2에 의하면 性別, 教育程度, 家族生活段階는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에 獨立的 影響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家族收入과 家族스트레스가 有意하게 影響을 미친다. 즉 家族收入이 많으면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이 풍부해지고, 家族스트레스가 심화되면 상대적으로 家族資源이 빈약해짐을 나타낸다. 이는 앞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家族스트레스는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에 따라 影響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家族資源이 풍부하다고 認知하는 家族은 家族스트레스가 적게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도표화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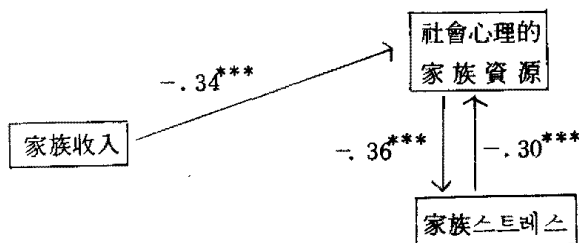


그림 3. 研究結果.

(그림 3)에서 보듯이 家族收入은 家族스트레스에 직접 影響을 주지는 않았으나 社會心理的 家族資源量을 통해서 影響을 미친다. 또한 家族스트레스는 社會心理

的 家族資源과 相互 影響을 주는데 家族스트레스가 家族資源에 미치는 影響보다 家族資源이 家族스트레스에 미치는 影響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McLanahan (1983)의 研究결과와 유사하게, 낮은 수입이 하나의 매개변수로 心理的, 社會的 支持에 影響을 주어 家族스트레스에 影響을 주는 것이다. 또한 夫婦關係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으로 <생활비지출문제>가 가장 높은 緊張次元을 차지했고 이정연, (1981), Blood & Wolfe (1960)의 조사에서도 家族生活의 不滿의 源泉으로 비중이 큰 것이 <금전문제>였다. 영세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효재 (1972)의 연구에서도 부인들의 結婚不滿의 가장 큰 이유가 經濟的 貧困으로서 항상 緊張과 葛藤이 항존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도 <家族收入>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家族내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현대 家族스트레스는 간접적으로 經濟的 根源인 “금전” 때문에 심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VI. 結 論

본 研究의 目的이 家族스트레스의 概念定立과 그에 관련된 變因들을 部分的으로 調査, 分析을 시도함으로써 家族스트레스現象을 드러내고 앞으로 家族스트레스 研究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目的아래 시도된 研究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家族生活段階(Ⅱ~Ⅴ단계)를 통하여 가족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다.

둘째, 客觀的 要因으로서 性別, 教育程度, 家族收入에 따라 家族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教育과 家族收入이 높으면 社會心理的 家族資源量은 많아지고 특히 家族收入은 중요한 變因으로 나타난다.

셋째, 家族스트레스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과는 否定的 相關關係를 갖는다.

넷째, 家族生活段階, 性別, 教育程度, 家族收入중 家族收入 變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는 家族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나 社會心理的 家族資源과 관계되어 간접적으로 家族스트레스와 否定的 關係를 갖는다. 즉 現代家族에서 <家族收入>은 社會心理的 家族資源에 正的 相關關係를 갖고 家族의 緊張이나 부담감을 내재시키는 潛在的 要因이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家族스트레스, 家族스트레스, 家族資源에 대해 家族員의 知覺 및 判斷過程을 통하여 그와 관련된 要因에 따른 現象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가 外形的으로 파괴되지 않은 家族体系의 스트레스를 기술하고 限定하여 分析을 시도한 것은 家族스트레스研究의 하나의 시발점이다.

실제로 앞으로의 家族스트레스연구는 家族의 脆弱性, 回復力과 관련되는 潛在的 要因 및 그 과정분석이 이루어지면서 家族의 構造의 特性, 家族의 相互作用類型, 커뮤니케이션, 家族의 志向性, 家族의 限界的 資源, 管理등의 辨證法的 關係가 세밀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家族의 脆弱性에 영향을 주는 家族의 相互作用, 家族內的 組織의 水準, 변화에 대한 저항, 地位, 權力構造, 예비된 社會化, 적응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家族回復力과도 관련되는 家族의 價値觀, 夫婦適應度, 親族關係, 婦人의 社會活動量, 感情의 共有性 등이 어떤 力動關係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Hansen, 1979) 앞으로의 研究는 主觀的 要因이 고려된 면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研究의 制限點 및 미래 研究에 대해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에서 新婚期家族, 成人子女家族, 老人家族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家族生活段階의 전반적인 경향을 기술하지 못한 制限點을 갖고 있다. 이는 앞으로 많은 대상을 고려하고 長期的 時間經過와 함께 적용하여 家族生活段階의 有用性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家族生活事件變動으로 家族스트레스를 규정했지만 垂直的 家族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립하고 家族스트레스過程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外形的으로 파괴된 家族, 三世代直系家族, 問題家族, 解體된 家族, 父母子女間의 家族스트레스의 여러면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여 危機家族이 되었거나 問題가 되는 家族의 研究는 그에 대한 對策 및 適應方法까지 밝혀냄으로써 家族福祉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1) 고병학·송옥현·신운오, 한국인의 생활사건에 관한 예비적 연구 I : 생활사건척도, 신경정신의학, 제 20 권 1 호, 1981.
- 2) 강희경·최인현·윤종주, 한국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 WFS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3) 김혜선, 結婚滿足도에 관한 文獻的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2.
- 4) 박종원, 靑少年 精神障礙患者의 生活事件에 관한 研究, 신경정신의학, 제 21 권 4 호, 1982.
- 5) 배영숙, 精神疾患患者의 스트레스사건과 適應方法에 대한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2.
- 6) 심상호, 스트레스정도와 情動障礙, 신경정신의학, 제 21 권 3 호, 1982.
- 7) 옥선화, 한국가정의 가정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논집, 성심여대 생활과학연구소, 제1권 1 호, 1980.
- 8) 유영주, 家族關係學, 서울 : 教文社, 1981.
- 9) 이병윤의 2 인 現代精神醫學, 서울 : 一湖閣, 1983.
- 10) 이장호, 상담심리학입문, 서울 : 博英社, 1980.
- 11) 이지순, 첫아이출생후 夫婦가 지각과 家族의 生活變化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1.
- 12) 이정연, 男便의 性役割態도와 結婚滿足도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1.
- 13) 이평숙·임형빈, 스트레스사건과 적응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 제 10 권 1호, 1980.
- 14)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자원개발연구소, 노서빈편가  
족문제와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1972.
  - 15) 최부옥, 家族生活段階에 따른 간호요구영역에 관한  
16)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7 권 2 호, 1977.
  - 17) 차배근, 社會統計方法, 서울: 世英社, 1979.  
최태진·강병조, 한국에서의 社會再適應評價尺度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 20 권 2 호,  
1981.
  - 18) 홍강의·경도연, 사회재적응평가척도 제작, 신경  
정신의학, 제 21 권 1 호, 1982.
  - 19) Aldous, J., *Family Careers : Developmental  
Change in Famil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 20) Booth, A. :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November), 1979.
  - 21) Burke, R.J. and Weir, T. : *Marital Helping Re-  
lationship: The Moderators between Stress and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95( Janu-  
ary ), 1977.
  - 22) Burr, W. R. :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February ), 1970.
  - 23) Burr, W.R. : *Role Transition : A Reformulation  
of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 August ), 1972.
  - 24) Cobb, S. :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 5 ),  
1976.
  - 25) David, L. S. ( Ed. )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3 (15), New York : Mac-  
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 26) Dean, A. and Lin, N. : *The Stress -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 1977.
  - 27) Galvin, K. M. and Brommel, B.J. : *Family  
Communication*, Scolf: Foresman and Company  
1982.
  - 28) Hall, K. S. et al. : *Bipolar Illners, A Prospective  
Study of Life Events*, *Comprehensive Psychia-*
  - 29) Hamilton, V. and Uarburton, D. M. : *Human  
Stress and Cogn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9.
  - 30) Hansen, D. A. and Johnson, V. A. : *Rethinking  
Family Stress Theory ; Definitional Aspects, Co-  
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 31) Hansen, S.L. : *A Family Life Cycle Approach  
to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Working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May ), 1983.
  - 32) Holmes, T.H. and Rahe, R.H. :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  
osomatic Research*, 11, 1967.
  - 33) Hudson, W.W. and Murphy, G.J. : *The Non  
-Linear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  
ction and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May),  
1980.
  - 34) Hurst, M. W., Jenkins, C.D. and Rose, R. M. :  
*The Assessment of Life Change Stress*, *Psych-  
osomatic Medicine*, 11, 1978.
  - 35) Kimmel, D.C. :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0.
  - 36) Korchin, S. J. : *Modern Clinical Psychology*, N.  
Y. :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1976.  
*tory*, 18, 1977.
  - 37) McCubbin, H. : *Integrating Coping Behaviors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May), 1979.
  - 38) McCubbin, H. : Joy, C. B., Cauble, A.E., Comeau,  
J. K., Patterson, J. M., and Needle, R. H.: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November ),  
1980.
  - 39) McCubbin, H., Comeau, J. and Harkins, J. :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FIRM)*, St. Paul Minnesota : Family Social Sci-  
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1983.
  - 40) McCubbin, H., Wilson, L. and Patterson, J. :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St. Paul Minnesota : Family Social Sc-

- 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1.
- 41) McLanahan, S. S. : *Family Structure and Stress :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 - Parents and Female - Head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May), 1983.
- 42) Medling, J.M. and McCarrey, M. : *Marital Adjustment Over Segment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February), 1981.
- 43) Menaghan, E. :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s ;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May), 1983.
- 44) Lewis - Beck, M. S. : *Applied Regression an Introduction*, Sage Series #22,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0.
- 45) Nock, S.L. : *Family Life Cycle Transition : Longitudinal Effects on Family Memb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November), 1981.
- 46) Olson, D. H., Russell, C. S., and Sprenkle, D.H. : *Marital and Family Therapy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November), 1980.
- 47) Pake, E. S. et al. : *Life Events and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21, 1970.
- 48) Pake, E. S., Prusoff, B. A. and Uhlenhuth, E. H. : *Scaling of Life Events*, *Arch. Gen. Psychiatry*, 25, 1971.
- 49) Pake, E. S. and Uhjenhuth, E. H. : *Rating the Magnitude of Life Stress*, *Can. Psychiat. Asso. J.*, 17, 1972.
- 50) Patrick, V. et al. : *Life Events and Primary Affective Illness*, *Acta. Psychiatry Scan*, 58, 1978.
- 51) Rice, F. P. :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 and Bacon, 1979.
- 52) Sarason, I. G., Johnson, J.H. and Eiegel, J.M. :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 Development of the Experience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981.
- 53) Schafer, R. B. and Deith, P.M. : *Equity in Marriage and the Family* 45 (May), 1983.
- 54) Spanier, G. B., Lewis, K. A. and Cole, C. L. : *Marital Adjustment Over the Family Life Cycle : The Issues of Curviline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May), 1975.
- 55) Spanier, G. S., Sauer, W. and Larzelere, R. :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February), 1979.
- 56) Swenson, C. H., Eskew, R. W. and Kohlhepp, K. A. : *Stage of Family Life Cycle, Ego Development and the Marriag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November), 1981.
- 57) Thomson, K. C. and Hendrie, H. C. : *Environmental Stress in Primary Depressive Illness*, *Arch. Gen. Psychiatry*, 26, 1972.
- 58) Times : *Stress ; Can We Cope ?*, 1983, 6.6.